



젊은 열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성남시지부

# 회원 위한 밝은 비전이 움트는 곳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아름답다. 성남시지부는 회원 업소수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 더욱 빛이 나는 곳이다. 오랜 시간 쌓여진 회원들의 두터운 신뢰와 젊은 패기를 앞장세운 임원들의 열정으로 성남시지부는 한걸음 한걸음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취재\_김영주 기자·사진\_전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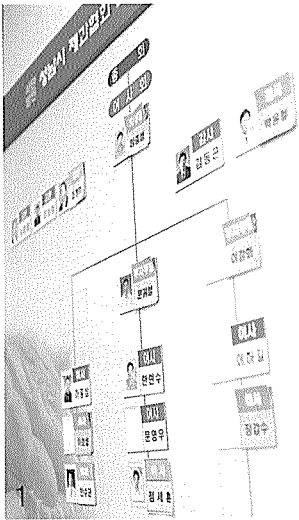
1979년 겨울, 성남 지역의 제과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결성한 성남시지부는 27년이 흘러 이제는 의젓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성남시지부는 경기도의 여러 지부 가운데서도 역사가 오래되기로 유명한 곳으로 그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견고하고 안정된 지부로 자리 잡았다. 청년기를 맞은 성남시지부는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하는 비전을 갖고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청년다운 패기로 새로운 동지 마련

성남시지부는 지난해 5월 새로운 동지를 마련했다. 창립이후 계속 사용하던 협회 사무실이 많이 낙후된 탓에 고민이 많았던 성남시

부는 방충성 지부장을 필두로 하는 젊은 이사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사무실 이전 사업의 결실을 이뤘다. 방충성 지부장은 장기화되는 불경기로 인해 회원수가 줄어 협회 살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습을 재정비하고 회원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앞선 지부장들이 차근차근 준비해 온 협회 이전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지난 1년간 총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성남시지부는 비록 아담하지만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회원을 맞이하고 있다.

성남시지부는 협회 활동의 주축들이 되는 임원진 모두가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청년의 패기가 살아 숨신다. 지부장과 부지부장, 총무이사과 이사들로 구성된 임원진은 세미나, 협력업체 관리 등 협회 업무를 분업화해서 사업을 보다 발 빠르게 추진한다.



1 성남시지부는 지부장, 부지부장, 이사들로 임원진이 구성됐다. 임원진들은 모두 협회의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솔선수범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2 새로운 지부 사무실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2006년도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3 방충성 지부장은 취임 1년 만에 사무실 이전 사업을 완수할 정도로 젊은 패기와 넘치는 추진력으로 성남시지부를 이끌어가고 있다.

“임원진들이 대부분 비슷한 나이로 생각하는 것도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의 추진력이 강하죠. 임원진들은 협회 일이라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 걸음에 달려올 정도로 협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모두 한뜻으로 똘똘 뭉쳐 일하니 사무실 이전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 회원 위한 축제로 한마음 이뤄

해마다 성남시지부의 가장 큰 행사는 창립기념일이다. 창립기념일에는 지부를 창립했던 그때의 하나 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든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제를 연다. 성남시지부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부에서 큰 행사라 여기는 정기총회는 서류 회의로 대신하고 창립기념일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 창립기념일 행사는 성남시지부가 창립한 이래 지부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창립기념일에는 넓은 장소를 빌려 음식을 준비하고 회원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회원들은 축제에 참여해 화합의 시간을 갖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부 살림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다. 성남시지부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이날을 고대할 만큼 창립기념일 행사는 성남시지부와 회원들을 27년 동안이나 끈끈한 유대감으로 연결시켜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창립기념일 축제는 우리 지부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매년 많은 노력을 들여 치르고 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가 워낙 나빠서 회원들의 어깨에 힘이 없고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도 생겨서 안타까워요. 성남의 살림살이가 어서 빨리 나아져서 회원들이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창립기념일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창립기념일 축제뿐 아니라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서 성남시지부 임원진들은 1년에 2번 정도 모든 회원 업소를 일일이 방

문해 회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며 지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꿈

다른 지역 어디나 마찬가지로 많은 제과점이 폐업한 탓에 회원 업소가 많이 줄어들었다. 회원이 줄면서 자연히 협회 재정이나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남시지부는 오히려 큰 꿈 덕분에 활기가 넘쳐 보인다. 몇 년 지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판교 지역을 고려해 성남시지부는 앞으로의 청사진을 벌써 설계해뒀다.

“판교가 들어서면 판교, 분당, 성남의 중간 위치로 지부 사무실을 다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때 마련할 지부 사무실에는 회원들을 위한 세미나실을 가장 먼저 개설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신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하고 자영업과점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년에 4번 정도 실시하고 있는 기술세미나를 열 때마다 장소 섭외가 어렵고 더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지 못하는 점이 늘 안타까웠던 성남시지부 임원진들은 세미나실 개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회원들이 원할 때면 언제나 협회 사무실이나 세미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부 사무실을 활짝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임원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각자의 자비를 털어 한달에 한번씩 적금을 들어가며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성남시지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방충성 지부장과 임원진들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반짝거린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에는 성남시지부를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회원 수 감소와 회원들의 매출 하락으로 성남시지부는 힘들고 추운 겨울날을 보내고 있지만 곧 찾아올 새로운 봄날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